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은 이 땅에서 누구를 나타냅니까?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거인과의 싸움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미켈란젤로는 로마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이 전투 장면을 그렸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다윗과 골리앗: 약자, 부적응자, 거인을 이기는 기술』(2015)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기도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서양 문화에서 이 이야기는 극복할 수 없는 역경을 극복하고 적을 물리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는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인을 물리치도록 도우려 오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 즉 훨씬 더 근본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일까요? 설교 제목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누구를 나타냅니까?

성경 읽기: 사무엘상 17:38-47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장대한 전투를 벌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사진) 한쪽 언덕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편 언덕에 있습니다. 그들은 강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현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조상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그 지역에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에게해 지역에서 기원전 철기 시대 초, 1200년 경에 이주해 와서, 블레셋(지도)을 세웠습니다. 블레셋은 다섯 도시 국가(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의 연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좋은 이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과 왕들 시대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이었고, 항상 그들 사이의 울타리를 허물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경 바로 안쪽, 엘라 골짜기에,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약 20km, 가드에서 동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가드와 에그론이라는 성읍에서 시작하여 베들레헴 언덕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점령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심부로 진입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가드의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는 챔피언입니다. 이 단어는 글자 그대로 "두 군대 사이의"를 의미합니다. 챔피언은 군대에서 나와 두 전선 사이에 자리 잡고 적군 중 가장 뛰어난 전사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제안하는 사람입니다(이것이 바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용기 가득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뛰어난 용사입니다. 그의 모습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키가 3미터(9피트 9인치)이며, 고대 장신 민족인 아낙족속의 후손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신체적으로도 우세했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강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로 보내 땅을 정탐하게 한 지 500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정탐꾼 중 10명은 아낙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습니다(민수기 13:31-33). 그들의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산간 지방의 아낙 족속을 정복했을 때, 남은 자들은 가사, 갓, 아스돗으로 이주했습니다(여호수아 11:21-23). 이 거인의 후손인 골리앗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산간 지방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골리앗의 전투 장비는 최고였습니다. 그는 청동으로 덮여 있습니다(투구, 쇠사슬 갑옷, 무릎과 정강이 보호대, 등에 메고 있는 굽은 칼). 그의 쇠사슬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55kg, 120파운드 이상)입니다. 그의 창 끝은 철로 만들어졌고, 무게는 600세겔(6.6kg, 15파운드)입니다. 골리앗은 위압적이고 절대 이길 수 없는 기계 같았습니다! 그에 더하자면, 골리앗 앞에는 방패병이 서 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큰 직사각형 모양의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린 것도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작았고, "티셔츠와 청바지", 즉 기본 옷만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나이가 많아 군 복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 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다윗은 군인이 되기엔 어렸고, 다윗은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전투 준비를 마치고 앞으로 나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는 첫 번째 말은 모욕이었습니다.

8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9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 있는 전투 방식은, 고대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대리 전투 방식입니다. 진 용사의 백성은 승리한 용사의 백성의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 하고 골리앗이 외쳤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전사들은 골리앗의 덩치와 힘을 보고 그의 도전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을 골리앗과 비교하며 무너진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챔피언이 되어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큰 사울조차도 두려움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챔피언이 되는 대신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후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승리자는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왕궁에 들어가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의 가족은 영원히 세금을 면제받을 것이다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제안입니다!!

16 그 블레셋 사람이 사십 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골리앗은 사십 일 동안 군대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사십 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공포에 질려 마비되었습니다.

사십 일 동안 다윗의 세 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순간이자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리적, 신체적 자원은 고갈되고 있었고, 골리앗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절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의 잘 사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길 수 없는 거인은 누구일까요? 기말고사, 취업 면접, 관세, 주택 담보 대출, 이민 절차, 그리고 사이 안 좋은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평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를 골리앗과 비교하다 결국 무너졌습니다.

1. 우리는 강자를 우리 자신과 비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비교하는가?

40일 후, 이새는 다윗에게 약 20리터의 붉은 곡식과 열 덩이의 빵을 형들에게 가져다주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의 부대 지휘관에게 특별한 선물, 치즈 열 덩이를 보냈습니다! 피자 때문인가 봐요!!

새벽녘, 다윗은 양 떼를 목자에게 맡기고 최전선으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함성을 지르며 전선으로 나가려는 바로 그때, 그는 도착합니다. 다윗은 보급 장교에게 짐을 맡기고 형들을 만나러 달려 나갑니다. 형들과 이야기하던 중, 그는 처음으로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쩌면 그의 생애 처음으로,

주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이 골리앗에게서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에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들릴까요? 다윗이 자신의 작은 체구를 골리앗과 비교하며 두려움에 떨며 도망칠까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다윗의 말을 듣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할까요?

26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와!! 다윗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에서 13번 언급되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40번, 이스라엘은 16번, 주님은 6번, 하나님은 4번 언급됩니다. 내림차순으로 나열된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골리앗은 거대한 존재였고 하나님은 작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큰 존재일까요?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대담하게 모욕하는 것에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조롱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도전으로 여깁니다! 그의 말은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맥락,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임재 안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5: 26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발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면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살아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의 영광스럽고 강력한 임재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골리앗을 자신이 아닌 살아 계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세계관이 변화됩니다. 사물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골리앗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였고 다윗에게는 단지 할례받지 않은 자일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강자들과 마주할 때,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니면 적이나 원수의 힘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느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을까요? 치유 문화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개인적인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입장에서 보는 강자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승리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다윗의 만형 엘리압이 개입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엘리압은 자신의 실패를 회개하는 대신 다윗의 정직함을 공격합니다. 본인의 감정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 너는 선을 넘어섰구나. 너는 지금 잘난 척을 하고 있는 거야. 양 치는 것을 내팽개치고 지금 사람들이 전투에서 죽는 것을 구경하고 있구나."

다윗이 말했습니다.

29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내가 형한테 감정 상하게 한 일이 있나요? 제가 말도 못 해요?" 동생의 입장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상황이 더 잘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형의 입장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다행히도 엘리압만 다윗의 말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의 말을 듣고 전했습니다. 다윗의 말은 사울 왕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32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33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너는 군대 올 나이도 안되고 그냥 너는 아직 미성년자다. 다윗의 대답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34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35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곰과 맞닥뜨린 적이 있으신가요? 몇 주 전, 브라이언 목사님과 저는 윌링던에서 디어 레이크 공원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한 친구(사진)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5미터 정도 가까이 다가오자, 저는 브라이언 목사님을 그쪽으로 밀었고, 곰은 숲속으로 쏙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브라이언 목사님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리셉션 담당자로부터 이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윌링던 애비뉴에서 교회 쪽으로 검은 곰 한 마리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자와 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37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히브리어에서 강조된 부분은 "주님"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입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용감하게 순종합니다.

3. 오늘날 우리의 관점은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까?

다윗은 노련한 용사 사울 왕과 그의 세 형들보다 훨씬 더 전투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관점에서 골리앗은 자신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기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은 그의 투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명예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왕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군사적 도박을 감행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러 가라고 명령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지면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기도하고 축복해 주면서, 다윗에게 가장 좋은 청동 투구, 갑옷, 그리고 칼을 주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빠르게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칼을 들고 싸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전략은 골리앗과 같았습니다.

다윗이 필요한 것은 사울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였고,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고 본인에게 익숙한 것, 즉 지팡이와 물매, 그리고 시냇물에서 가져온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는 지팡이와 물매를 다루는 데 능숙했습니다. 하키 퍽을 치는 대신, 베들레헴 주변 언덕에서 움직이는 것들에 돌을 던지며 몇 시간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주운 물맷돌은 아마 테니스 공만 했을 것입니다. 영국 박물관에 전시된 물매와 돌들입니다(사진 - 라기스 전시). 일반적인 물매꾼은 돌을 시속 120km(75mph)로 던질 수 있고, 숙련된 물매꾼은 시속 200km(130mph)가 넘습니다. 시속 120~200km의 속도로 날아오는 돌에 맞으면 머리가 심각하게 아플 것입니다 고대 군대는 물매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골리앗이 앞으로 나아오자, 그는 상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모멸감을 줍니다. 골리앗은 어린아이를 물리친다고 해서 명예를 얻을 수 없습니다.

43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엘리압은 말했습니다. "다윗, 너는 골칫거리야!"
사울이 말했습니다. "다윗, 너는 경험이 부족해!"
골리앗이 말했습니다. "다윗, 너는 왜소하구나!"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고, 그의 시체를 더럽히고, 새와 짐승에게 시체를 내어놓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시체를 묻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주목할 것은, 다윗이 골리앗의 무기를 정확히 알고도, 물매와 돌을 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온 것은 진정한 무기, 곧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 이름을 부끄럽게 하려 했습니다. 골리앗은 정말 압도적으로 패배했습니다!!

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훨씬 더 큰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블레셋의 신들처럼 죽은 신이 아닙니다.

4.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게 속합니까?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이름 때문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나타냅니까?

골리앗은 다윗에게 당당하게 걸어옵니다. 그는 이 어린 이스라엘 소년을 짓밟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전선을 향해 재빨리 달려가 주머니에서 돌멩이 하나를 꺼내 온 힘을 다해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완벽한 일격을 가합니다 - 돌멩이는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두개골을 부수고) 그는 땅에 쓰러집니다. 쿵! 골리앗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가 칼을 뽑아 그를 죽입니다. 충격과 혼란에 빠진 블레셋 군대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골리앗이 다윗을 죽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용사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돌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다윗의 승리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빠진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의 성읍인 가드와 에그론으로 몰아냈고 그다음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와 약탈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누구에 해당합니까?

두려움에 움츠러든 사울입니까?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골리앗입니까?

무력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군대입니까? (그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엘리압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이 전투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도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7:3-4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직면하셨을 때, 가장 큰 싸움을 앞두고 예수님은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2:2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챔피언(우리의 대리인)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우리의 원수들, 곧 죄와 사망과 악한 자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5.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챔피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과 악한 자를 물리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겪는 어려움(부부 관계, 주택 담보 대출, 영주권 과정,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시나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권세, 사망을 이기는 승리, 악한 자를 이기는 권세를 얻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 안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이라는 단어는 "공식적인 대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대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시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부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 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묵상 시간:

여러분 앞에 있는 강자를 생각해 보세요

1. 예수님을 당신의 챔피언(대언자, 증보자)으로 모셔보세요.
2. 강자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비교하세요.
3.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실하셨음을 기억하세요.
4. 개인적인 승리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세요.
5. 여러분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세요.